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선생님 명설교 정리말씀

하나 되어라! 그러면 내가 함께하리라

본문: 마태복음 18장 19-20절

또 한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전초 말씀이 나갔습니다. 먼저 성서의 말씀을 보고서 말씀으로 이야기 나누며 하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하나 되어 행하라. 하나가 되어 행하라’ 각각 행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일하기 쉽고 하늘도 일하기 쉽다.

“각각 나누어서 하면 나는 두 번 해야 된다. 이쪽 한 번 해 줘야 되고, 이쪽 한 번 해 주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나 돼서 행하면 나도 한 번에 행하기 때문에 배나 일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 되어 행하자’.

이제는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제 너희가 너희를 쫓던 자들을 쫓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 금주의 말씀을 들어봐라.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가 돼서 행하라. 둘이 돼서 행하면 그렇게 할 수없 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왔을지라도 그냥 사람들끼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돼서 해야 되지,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면 “두 사람이 같이 기도도해야 되지만 두 사람이 같이 해서 행하라. 그리하면 나도 같이 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같이 할 수 있는가 하면, 혼자 행하지 말고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둘이 하나 돼서 행하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왔던 둘이 하나 된다는 인식과는 다를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둘이 하나 되는가? 다시 말하면 김씨는 김씨끼리 박씨는 박씨끼리만 하나 되지 말고, 박씨와 정씨도 하나 되고 정씨와 고씨와도 하나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결혼하지 말고 둘이 결혼하라. 여자도 결혼하고 남자도 결혼해서 하나 되는 것같이, 혼자 하지 말고 둘이 해야 성사가 된다. 둘이 해야! 둘이 해야 된다! 이제 너희가 때가 돼서 너희를 쫓던 자를 쫓아가서 행하리니, 그렇게 행하는데 각자 쫓아가면 안 된다. 둘이 하나 돼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토끼몰이를 할 때, 토끼를 잡으러 산에 갔는데 둘이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먼저 한 시간 동안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 내가 지쳐서 못하겠으니 B 네가 쫓아가서 하라.” 하면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는 뒤에서 쫓고 하나는 앞에서 쫓아라, 그러면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이 합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둘이, 너희들이 한자리에서 의논해서 주를 부르느냐? 그러면 나도 함께한다. 그러나 둘이 각각 하면서 나와 함께하려고 하면 역시 하나의 효과밖에 안 된다. 둘이 하나가 된 위에 나도 하나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둘’이라는 것은, 자기편의 둘이 아니라 상대편과 자기편 하나! 자기편 하나, 상대편 하나! 근본적인 것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 된 터전 위에서 하나 되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혼자 하지 말고 둘이 하나 돼서 움직이도록 하라. 그래야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온 지구상의 있는 모든 섭리의 사람들의 문제는 전부 다른데 답은 하나밖에 안 옵니다. 답이 하나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가, 모든 것의 이치와 법칙과 원리이니까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여러 종교와 교파가 있어서 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 한마디 속에 모든 종교와 교파의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천 마디 물음에 하나님은 한마디만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듣기 바랍니다.

각자 일을 하고, 여러 수천 개 수만 개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단상의 말씀에서 한마디로 “너희가 둘이 하나 돼서 행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말씀 하나씩 하나씩 해치면서 두 번째 또 끌러 볼까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두 사람이 같은 입장과 처세로 일체 된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해서 모든 일을 하리라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내가 답을 주면, 저 사람에게는 또 답을 달리 줘야 됩니다. 똑같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하나 되었을 때의 답하고, 한 쪽 편에서만 와서 이야기했을 때의 답이 다릅니다.

양측이 하나 안 되고 각각 와서 이야기하면 답이 두 개가 됩니다. 그런데 답이 두 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두 개이니까 답이 두 개가 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돼서 행해야 된다!

둘이 하나 돼서 행해야 과거에 너희를 쫓던 자들을 쫓아가게 하리라!!

“너희들이 뭘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상대의 말도 들어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상대의 말도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가 되었으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주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 인간이 하면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지나? 인간이 하면 한쪽만 보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일을 한 번 더 할 때 추진되지 못할 일이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도 동시성으로 돌리는 것은 지난 것에서 못한 것을 다시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시대와 때와 시기가 수준이 낮고 모두 어려서 그렇게 갔지만 이제는 수준이 높고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역사를 돌려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성의 역사이지만 차원 높은 역사로

가게 되고 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역사라면 두 번째 동시성적 역사는 차원을 높여서 열매를 거두는 역사로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교뿐만 아니라 시대 전체가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역사에 여러분이 참여한 것이 얼마나 크고, 한 번 더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해를 빠르게 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하면 더 확실합니다.

아벨끼리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하나가 돼서 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상대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백짓장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항상 구하고, 모임하고, 같이 있고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하겠다. 같이 동참하겠다. 그러나 혼자 하는 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큰 효력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사람이 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모든 것이 빨리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며 섭리 역사를 펴나가자.

항상 서로 의논하라! 서로 상의하라! “그래서 이제는 너희 두 사람이 하나 돼서 나에게 보고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해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거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을 따라서 능선을 타면서 일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산의 능선을 타면서 양쪽치를 봐야 됩니다.

꼭 보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저쪽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네 편 능선을 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개를 합한 능선을 타라는 것입니다. 자기편의 능선만 타면 안 됩니다. 두 편을 합해놓은 능선을 타면서 양쪽치를 보고서 하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에서 모든 오다(order)가 떨어졌을 때 마음을 놓을 수 있지, 무조건 “믿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늘과 의논해서 됐으면 그때는 마음을 놓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다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섭리사는 자유의 세계입니다. 나는 자유 없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의논 하고 이야기해서 나아가도록! 몇 사람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늦더라도 지방의 교역자와 의논하고, 교역자들은 모든 교인들과 의논을 하든지 그 따르는 사람과 의논을 해서 모두 하나가 된다면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과 처세를 분명히 하고 하면 더 이상적입니다.

그런 것을 하늘 앞에 의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너희와 내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이야기를 해서 나에게 말하라.

오늘은 성공 비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하나님도 함께하시고 주도 함께하시고, 모두 다 하나 돼서 일이 잘된다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또 파악해야 됩니다. 한쪽 말만 듣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쪽 말을 듣고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말만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이 같이 의논해서 잘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면 내가 함께하리라!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하나 되어라! 그러면 내가 함께하리라.”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하나 되어라, 너희는! 그러면 나는 책임이 함께하리라!

금주에 하나님께서 희망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함께하리라” 했습니다. 그 동안에 함께했는데 한 쪽씩 한쪽씩 함께해서 일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된 상태에서, 난자와 정자가 하나 된 상태에서 태 보자기에 가니까 임신이 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말씀의 근본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 중에 내가 함께하리라.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면 함께하리라. 아벨끼리만 하나 되는 것 말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면 그러하리라. 솔직히 말해서 아벨끼리도 편이 있지 않느냐. 잘 통하는 사람끼리 편이 있지 않느냐. 너희와 잘 통하지 않는 그들과 하나 되었을 때, 그런 두 사람과 하나 되었을 때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해서 결재 할 없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의 묵시를 깨닫고 한 주일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렵니까?” “그러면 내가 함께해서 잘되고 형통케 하리라.”

우리가 그리 하겠사오니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의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두 겹줄이 강하니 너희가 반드시 두 겹줄로 하도록 하라. 그래야 잘되리라! 일 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잘 듣도록 하라. 너희가 겹줄로 하도록 하라. 그래야 잘되리라. 홀로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겹줄로 하되 통하는 사람끼리 겹줄이 아니고, 보다 너희를 반대하고 너희를 곡하게 여기는 사람과 하나 돼서 하라. 그것이 겹줄이라. 그러면 내가 함께하리라.”

오늘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물을 드리며 감사하며 나아왔습니다. 말씀하며 가르치며 살았던 이들입니다.

오늘 새로 온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불렀으니 이들이 인생길을 결정하고 영원히 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인생문제에 곤고함을 겪었었습니다. 마음과 육신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왔습니다.

“마음과 육신이 하나 돼서 하도록 하라! 마음만 내가 결재를 할 수 없다. 또 육신만 따로 결재 할 수 없다. 마음과 육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였느냐? 결심하였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였느냐?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새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권능으로 영과 육을 지켜 주시고, 그리고 요즘 말씀을 듣고 시대를 깨달은 자에게 힘 있게 나무뿌리가 흘러 뻗어가게 해 주시고, 이로 인해 꽃 피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이들이 지혜롭게 전도하고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를 꼭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농사를 지을 때 묘판, 묘목만 계속 기르면 안 된다 했습니다. 묘목에 아무리 거름을 해도 크지를 못하니 하나씩 옮겨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런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온 민족, 세계 각 나라가 하늘의 이 시대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하늘과 함께해서 뜻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아픈 자, 인생의 곤고를 겪는 자, 참으로 앞이 캄캄한 사람,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고 있다. 어떤 것은 기다려야 된다. 어떤 것은 과감히 믿고 나가야 된다. 어떤 것은 기도를 하라. 어떤 것은 너희가 하나 돼서 하도록 하라. 그래야 되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크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주 그리스도 사랑하심이 온 세계 각 나라에 함께하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사, 이들이 서로 하나 되어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해서 역사가 펴 나아가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이 옳은 데로 전도되어 역사가 펴나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오니 모두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평강과 의가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